



이토 온천 관광 문화시설 동해관(東海館)

시가지를 흐르는 마쓰카와에 가설된 '이테유바시(いでゆ橋)'와 '오카와(大川橋)' 사이의 강 기슭에 자리잡은, 멋진 풍경의 목조 건물이 바로 동해관(東海館)입니다. 동해관은 1928년 여관으로 시작해 긴 세월을 거쳐 증축과 개축을 거듭해 왔으나, 1997년에는 그 오랜 역사를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이토 시의 문화재로서 지금은 귀해진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또한 관내에는 당시의 역사 자료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가사키(城ヶ崎) 해안

먼 옛날 오무로야마의 분화로 인해 용암은 해안으로 흘렀습니다. 여기에 물결의 침식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거친 웅대한 해안의 크고 작은 수많은 곳에, 저마다의 독특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시의 천연 기념물인 굴거리 나무나 속나무는 일본 제일의 대형 군락을 형성하고 있으며, 앞바다에 뜨는 이즈의 일곱 섬(伊豆七島)을 마주보는 곳에는 전체 길이 9km의 하이킹 코스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코스 도중에 스틸 넘치는 공중 다리나 360도 조망을 즐길 수 있는 등대도 있습니다.

Nature of ITO



Culture of ITO



다다미 문화 대학



이토 온천관광 문화시설 '동해관'에 '다다미 문화 대학'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대학에 참여해 게이사가 된 기분으로, 옛날 좋았던 시절의 낭만적인 온천 거리를 산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조가사키 공중 다리



조가사키 해안의 명소로 유명한 것은 한시로오토시와 가도와키 곳에 가설된 길이 48m, 높이 23m의 가도와키 바다 공중 다리입니다. 이 다리는 공중에서 줄을 타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스릴을 느끼게 해 줍니다. 여기에 또 하나 숨겨진 명소로서, 다리 기둥과 줄이 뿌리에 설치되어 있는 길이 60m, 높이 18m의 다리가 세워진 바다의 공중 다리가 있습니다. 이 공중 다리는 끊임없이 변화해 온 조망과 험준한 자연에 맞물려 절경을 자아냅니다.

조가사키 유람선



후토 항에서 하루 8편이 출항하는 약 30분간의 크루징. 바다에서 바라보는 조가사키 해안 역시 절경입니다.